

I ♥ Tanzania



2013.04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다일공동체
www.dail.org

다일
공동체

*Our Children,
Our Hope!!*



새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새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절이기에
 말만 들어도 가슴이 뚫립니다.
 밥퍼의 현장에도 남녀노소가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며 새봄을 알립니다.
 강의실에서 만난 청년들도 푸르른 청춘을 불태우며
 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며칠 전 “청춘이여, 인생설계도를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대학생들을 만나 방송을 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이야기 나누어서 참으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새내기들이 마음껏 새봄을 만끽하기도 전에 움츠리게 만드는 것이 무한경쟁과 업적 위주의 자본주의 사회라는 객관적 환경이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스스로 펼쳐 일어나 삶과 새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써 대학생답게 푸르고 푸른 청춘답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꿈과 희망을 지닌 채 새학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더불어 새봄을 맞이한 후원회원님들도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어떤 일이 온 마음으로 기쁘게 투신할 수 있는 일인지를 계속 물으며 새봄을 준비하고 맞이하시길 소원합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며 뛰지 않던 가슴까지도 다시 뛰게 하는 새봄!
 그 새봄을 맞이하셨다면 벽찬 가슴을 가지고 청량리 밥퍼부터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을 넘어 탄자니아까지 여러분의 사랑으로 새봄을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후원회원님 덕분에 캄보디아의 한 아이가 한 끼 식사를 하고, 네팔의 한 여성에게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의 한 가정이 하루를 배부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처음 해보시는 현장체험의 새내기 봉사자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하자고요! 아하!!

2013년 4월에
 작은형제 **최** 율도 목사 올림

다일영성수련



2013년 4월22일(월) ~ 4월26일(금) | 1단계 144기 아름다운 세상찾기
 4~5월 5월27일(월) ~ 5월31일(금) | 1단계 145기 아름다운 세상찾기



“내 인생에서 못해본 여행이 딱 두가지 있다. 신혼여행과 우주여행
 신혼여행이 얼마나 멋질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다일공동체에서 경험한
 영적우주여행,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라는 영성수련은 여태까지
 내가 한 여행중에서 가장 멋지고 황홀한 여행이었다.”

-한비아(전 월드비전 구호팀장)

설곡산 다일공동체 시설이용안내

설곡산다일공동체는 침묵의 성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 정신과
 나사렛 예수의 영성을 침묵과 노동 속에서 구현합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해 섬김과 나눔을 살아가기 원하는 분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 쉼을 원하시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설곡산다일공동체 T: 031)585-2004
 www.dail.org H: 010)7756-8004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다일공동체)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을 기쁘시게

* 이웃을 행복하게

* 세상을 아름답게

C O N T E N T S

- 02 Focus 밥&꿈, 꿈꾸는 캄보디아
- 06 국내 다일의 현장 설곡산다일공동체
- 08 해외 다일의 현장 탄자니아다일공동체
- 10 해외 다일의 현장 네팔다일공동체
- 12 해외 다일의 현장 베트남다일공동체
- 13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 14 봉사자나눔터 밥퍼는 ○○○이다
- 15 봉사자나눔터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16 회계감사 및 2012년 결산개요
- 18 천사기업 한국수력원자력
- 20 다일 뉴스
- 22 Dail Book Cafe
- 23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cover story

어김없이 뜨거운 태양은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밥퍼 천막을 뚫을 듯합니다.
바람의 딸, 한비아님께서
시원한 바람을 한기득 물고 오셔서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에
한결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후원 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꿈꾸는 캄보디아



하나.
빵도 먹고 꿈도 먹는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빵퍼' 이야기

빵퍼의 시작은?

하나투어의 지원으로 빵퍼의 기반시설을 만들고 '달러 도네이션의 착한 여행'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의 빵퍼가 되었습니다.

밥퍼가 아닌 빵퍼는?

수상촌으로 이루어진 가난한 마을에서는 집이 먼 아이들이 밥퍼 센터까지 밥을 먹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빵을 구워 전달하는 빵퍼가 만들어 졌습니다. 오늘도 빵을 가득 실은 차는 멀리 사는 아이들을 만나러 달립니다. 달려라~~빵퍼

센터에서 직접구운 따끈한 빵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1. 제빵 기술을 배운 캄보디아다일공동체 현지직원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빵을 굽습니다.
2. 으랏차차! 단팥, 소보루, 크림, 도넛 등 맛있는 '빵'에 사랑을 더해 만듭니다.
3. 이렇게 만들어진 빵은 인근 빈민촌 5개 지역 굶주린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꿈꾸는 빵퍼'에서는 빵을 나눠주는 것 외에, 제빵 실습 형성을 위한 제작기술을 교육하며, 교육을 통한 직원 고용 등 자립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다일공동체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빵으로 사랑을 나누며 제빵왕이 되는 다음세대, 꿈나무를 키우고자 합니다.



‘빵퍼 후원회원님~
꿈꾸는 ‘빵퍼’와도 함께 해 보세요!



C A M B O D I A



들.
물 위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을 위한 맞춤형! 배지원 프로젝트!

배가 왜 필요할까요?

수상 마을에는 집을 지을 땅과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 물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는 그들이 사는 수상촌 지역에 생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위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배는 집이며, 이동수단이며, 생계수단입니다.

배지원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우리 집에 배가 필요해요.”
마을주민들이 직접 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배 지급 가정으로 선정되면 가정 방문을 통해 배 지원을 결정합니다.
3. 배 지원 계약 체결! 배를 지원한 후 1년동안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4. “우리 집에 배가 생겼어요~”
제공된 배를 타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부모님은 고기잡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배가 꼭 필요하다고요?

물 위에서 사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배가 없다면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통학용 스쿨보트가 필요합니다.



어른들에게도 배가 꼭 필요하다고요?

수상마을이다보니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고기잡이로 하루 1\$정도를 벌며 5명 이상의 가족들이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배조차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생계용 고기잡이보트가 필요합니다.

배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으며, 부모님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수입이 늘어나면 아이는 다음 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배지원 사업을 통해서 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배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배 한 척을 만드는 비용 \$500 (배 수명기간 7~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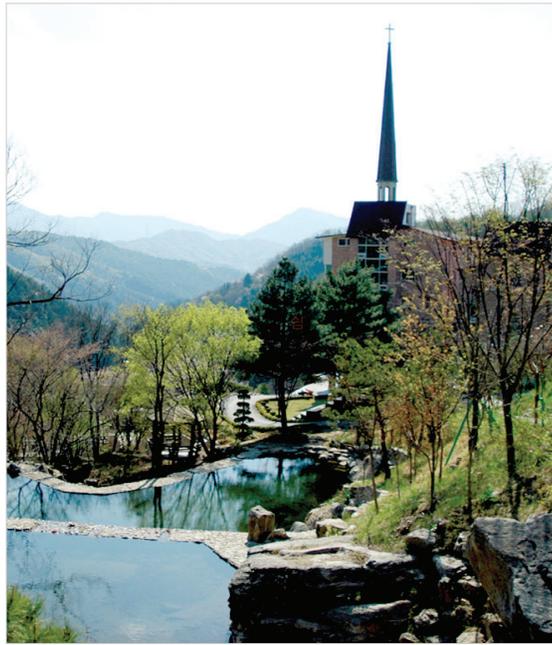
*** 캄보디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빵퍼’와 ‘배지원 사업’은 착한기업 하나투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빵퍼를 통해서 빵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빵을 만드는 기술을 나눔으로써 현지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돕습니다. 또한 수상빈민촌 특성상 배는 현지인들에게 집이며, 생계수단입니다. 배 한 대가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와 함께하는 하나투어에 감사드립니다.

꿈꾸는 캄보디아와 함께하는 방법

국민은행 467701-01-142565 (예금주: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 캄보디아다일공동체 855-78-708080

눈이 부시게 푸르른 설곡산 100배 즐기기



따사로운 햇빛과 알싸한 꽃내음이 우리의 오감을 기분 좋게 하는 4월의 봄입니다. 겨울동안 하얀 옷을 입었던 설곡산이 어느새 푸르른 봉우리를 드러내어 따사로운 햇살에 더욱 푸르게 보입니다. 설곡산다일공동체에서는 봄을 더욱 만끽 할 수 있는데요~ 설곡산 100배 즐기기 함께 가보실래요?

① 야생화 카페 - 유빌라떼

유빌라떼 2층에 위치한 야생화 카페에는 돌이 가득한 계곡, 돌을 휘감아 돌며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 시원한 바람과 춤추는 나무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내외의 작은 야생화들과 차 한 잔을 즐기다보면 어느새 마음까지 차분해집니다.



② 천국의 계단 - 산정호수 옆 육각정 길

설곡산다일공동체 입구 옆길부터 유빌라떼를 끼고 호수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양 옆 벚꽃나무에는 봄맞이 벚꽃이 한창입니다. 길을 따라 육각정에 도착하면 계곡 따라 흐르는 물에게 “너는 누구니?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가니?”라고 물으며 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봅니다.



③ 달빛 사이 - 화해의 집 팔복길

화해의 집과 나눔의 집 사이를 연결하는 팔복길이 있습니다. 늦은 밤 예수님의 팔복 말씀이 새겨져 있는 이곳에 앉아 유리창 밖을 바라보노라면 두 개의 산봉우리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달이 어느새 얼굴을 내밀며 환한 달빛으로 마음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④ 기도 여행

치유의 집(골방, 종탑기도실), 화해의 집(지하 무덤기도실), 나눔의 집(팔복기도실, 중보기도실) 그리고 맨발로 등산길(기도14처)에는 하나님과의 대화 장소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도처를 순례하는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과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 됩니다.



⑤ 노을 광장 - 벚새다 광장

호수 위에 위치한 원호를 따라 놓인 돌계단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세요. 붉은 노을이 주변까지 물들어 놓으며 저물어가는 모습에 잠시 눈을 감고 침묵 속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⑥ 전망대 - 응답봉

설곡산 다일공동체 첫 번째 산봉우리이며, 이곳에서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라 하여 명명된 응답봉입니다. 응답봉에 앉으면 설곡산다일공동체 경내가 한 눈에 들어오며 한 폭의 그림이 마음속에 담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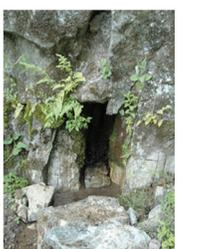
⑦ 맨발로

벚새다 광장(노을광장)을 지나 응답봉을 바라보며 오른쪽 계곡을 건너 반시계 방향으로 걷다 보면 기도 14처를 만나게 됩니다. 14처의 마지막, 부활동산에서부터 맨발로가 시작됩니다. 길 위를 맨발로 흙과 발이 하나 되어 걷다보면 잔나무숲, 적송숲, 참나무숲, 계란바위를 거쳐 응답봉 왼편으로 내려옵니다. 총거리는 3km이며 1시간 40분 소요됩니다.



⑧ 르비딤 약수터

해발 550m 산 중턱 바위틈 사이에서 일 년 365일 6각수 물이 흘러나옵니다. 벚새다 광장에서 응답봉 좌측 길로 가면 왕복 2km(1시간), 맨발로 길을 이용할 경우 총거리 4.5km(3시간)입니다. 맑은 물로 몸에 생기를 불어 넣어 줍니다.





쿤두치 채석장 공터에서 열 번째 밥퍼 배식이 이루어졌습니다.

5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해 길고 긴 줄을 섰습니다.
요즘 다레살람의 뜨거움이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평상시보다 머리 위에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밥퍼가 시작 되기 한참 전인데 아이들은 벌써부터 소란스럽게 줄을 섭니다.
빨리 줄을 서야 천막 아래 그늘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늦게 줄을 서면 뜨거운 땀방 아래에서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터에서 밥퍼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이 상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늘에 앉아 밥을 먹는 아이들!
땀방에 앉아 밥을 먹는 아이들!
오늘도 땀을 뻘뻘 흘리며 밥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 앞에 아른거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아이들에게 사랑의 밥이 되어, 일용할 양식이 되어
이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만나 주시고 손 잡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Tanzania

‘한 켠치고 나눔운동’

커피 마신 켠치고, 영화 본 켠치고, 밥 한끼 먹은 켠치고
천명이 1구좌 2만원씩 동참하시면
탄자니아에 컨테이너 두 동을 보낼 수 있습니다.

-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변창재원장 255-786-740-003
- 계좌안내 국민 467701-01-233964 다일복지재단

아미리, 암브로스 형제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미리와 암브로스는 할머니와 아빠와 함께 진흙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2009년 암브로스를 출산하다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와 아빠가 채석장에서 돌을 깨며 하루 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측정해 보니 8살인 아미리는 115cm 18kg, 4살인 암브로스는 90cm 14kg 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어린이 표준 신장표에는 8~9세 129.1cm 27.8kg, 4.5~5세 107.2cm 18.1kg 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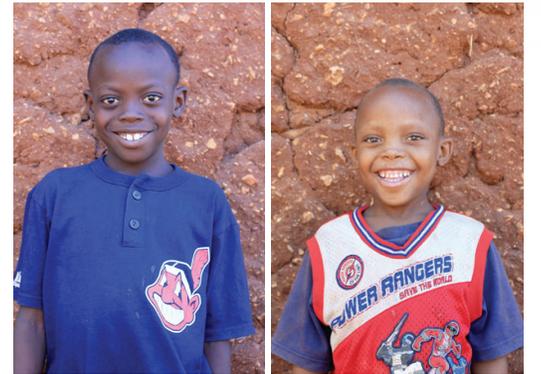
아미리는 표준치보다 키는 14cm, 몸무게는 10kg이 작으며 암브로스는 키 17cm, 몸무게 4kg이 작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아미리는 어디서 바지를 구했는지 몰라도 바지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아래는 접어서 올리고 허리는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맘이 참 아팠습니다. 집 안을 들어가 보니 침대도 없이 장판 한 장 깔아 놓고 네 식구가 살고 있었 습니다.

할머니와 아빠가 하루 종일 돌을 깨서 버는 돈 TSH 3,000 (한화 2,100원)으로는 먹고 살기조차 힘든 이 두 형제에게 사랑의 마중물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미리와 암브로스의 손을 잡아 주세요



아미리

암브로스



글 / 변창재 원장 (탄자니아다일공동체)



- 아프리카 아이를 일대일 양육하는 아동결연은 매월 3만원
 - 쿤두치 밥퍼 정기 후원 회원은 매월 2만원
 - 탄자니아 밥퍼 하루 배식비 후원은 50만원
- 문의 :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 미주다일공동체 770-813-0899
탄자니아다일공동체 255-786-740-003



Nepal

네팔의 대안학교 호프스쿨의 쿠시 니란전(행복한 니란전)



니란전은 2010년 호프클래스 개원 처음부터 같이 참여한 아이입니다. 12살 때부터 저희와 함께 하여 지금은 15살이 되었네요.

떠라이 아이로 매 년 철마다 떠라이지방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길 반복한지 횡수로 3년째입니다. 3년의 시간동안 니란전은 조금씩 천천히 밝고 건강한 아이로 변화하였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구걸로 하루종일 밖에서 지내며 까맣게 타버린 얼굴과 타인의 대한 경계로 긴장과 공포가 가득했던 눈,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센터의 물건들을 개인 물건인양 집으로 가져갔던 아이. 배식시간에도 줄 한번 서지 않고 하루에 한번은 꼭 센터에 오는 아이들과 치고박고 싸웠던 아이. 네팔다일공동체에서 니란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호프클래스에서 미술활동 후 작품을 들고 기뻐하는 니란전

3년이 지난 지금,

니란전은 “쿠시 니란전(쿠시는 네팔말로 행복입니다.)” 이라고 불립니다. 공포 가득했던 두 눈에는 사랑이 가득 채워졌고, 항상 굳어있던 얼굴은 하얀 이가 환하게 드러날 정도로 웃고 있습니다.

수업시간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들에게 수업에 집중하라며 반장역할까지 도맡아합니다.

미술시간에 니란전은 더욱 더 빛이 납니다.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는 니란전은 언제나 멋진 작품을 선생님들께 선보이며 선생님들의 열렬한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호프클래스가 2013년 4월 “대안학교 호프스쿨” 로 학

교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많은 사랑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대일 아동결연 후원!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의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호프클래스에서 호프스쿨로!!

네팔 집시촌 아이들과 거리의 아이들을 위해 시작되었던 특별프로젝트 호프클래스는 작년 Koica지원 사업으로 선발되면서 대안학교 호프스쿨로 확장되었습니다.

호프스쿨은 4월 22일 오픈을 앞두고 비전센터 옆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실은 옛건물을 부수고 거의 다시 짓는 수준의 대공사입니다. 이 건물이 완성되면 4개의 교실이지만, 오히려 기존의 웬만한 학교들보다 더욱 깨끗하고 훌륭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거리를 방황하던 아이들이 4월이면 새로운 학교에서 공부하며 장래의 희망을 일구어갈 생각을 하니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여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 학교공사가 잘 진행되어 아름답고 튼튼한 학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호프스쿨을 세우는데 함께하기!!

하나, 일반학교 진학을 위한 일대일결연후원

지속적인 교육과 고등교육을 위해서는 일반학교로 편입을 해야 합니다. 아동결연을 통해 후원하면 한 달에 3만원으로 거리를 떠돌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둘, 학습도구와 교육용품

새롭게 확장되어 지어진 호프스쿨에는 학습도구 및 교육용품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생교육을 위한 치약, 칫솔, 비누, 수건, 옷 등도 필요합니다.

셋, 학생들의 가정에 쌀, 콩, 기름 보내기

왜 학생들의 집에 이런것들을 보내야 하나요? 호프스쿨 아이들의 부모님 대부분은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 현실에, 자녀들을 거리 구걸이나 쓰레기장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구걸을 하며 희망이 없던 아이들은 대안학교에 나오면서 표정이 변하고 희망을 갖게되었습니다. 각 가정에 매달 쌀, 콩, 기름을 나누어 주어야 아이들이 구걸할 걱정없이 호프스쿨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글 / 박종원 원장 (네팔다일공동체)



네팔다일공동체 후원하기

국민은행 467701-01-157448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 네팔다일공동체 977-9849-458330



Vetnam

몸으로 배우는 나눔의 현장 밥퍼에 청소년이 뜬다!! 베트남다일공동체 '청소년 밥퍼'



따르릉~ 여보세요, 거기 밥퍼죠? 청소년도 밥퍼 봉사를 할 수 있나요?

청량리에 걸려오는 다양한 봉사문의 전화 중에서 부쩍 늘어난 전화가 청소년 봉사활동 문의라고 합니다. 성인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봉사자들도 매일매일 나눔의 기적이 일어나는 밥퍼 현장에서 몸으로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랍니다!



청소년 밥퍼를 위한 비전 현금 전달

그 첫 번째 모임

기도로 시작된 청소년 밥퍼는 베트남의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시작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쁨으로 비전현금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현금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청소년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보며 그들의 필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지게 될 '청소년 밥퍼'를 꿈꾸어 보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밥퍼의 현장에서 따뜻한 밥을 나누며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거죠~!!!



글 / 이종현 원장 (베트남다일공동체)

베트남 호치민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원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단체가 없으며,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이면서 체험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도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까? 나눔을 통해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현장에서 몸으로 배운 것들을 삶 속에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호치민온누리교회 교인들과 '청소년 밥퍼'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밥퍼 봉사 참여하기

밥퍼봉사, 빵퍼봉사, 의료봉사, 교육봉사에 함께 하기 원하는 개인, 단체를 기다립니다.

- 밥퍼배식시간: 매주 화, 목, 토 오후 4:00~5:00

- 그 외 봉사 담당자와 조율 후 진행

문의 :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 베트남다일공동체 84-12-6317-7912(lphome@dail.org)



한 번에 한 사람만을

- 마더 테레사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아멘.

도서출판 마음의 숲의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이루어지게 하소서' 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김연수 시인이 소중하게 여겨온 기도시들을 번역하여 엮은 책으로 신앙인이 아니어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위로 받고 싶고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는 글들이 담겨있습니다. 시인은 현재 다일영성생활수련원 원장이자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의 상임이사이며, 시집으로는 <숨어사는 신화> <그대가 내게로 오면> <아득한 별에 꽃씨 묻으며> <실락원의 연인들> <꽃살이> 있으며, 산문집으로 <사랑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겹다> 등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밥퍼는 ○○○이다

밥퍼는 기회이다.

- 김선민 (코오롱 인더스트리)
 가난하고, 희망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한 끼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나도 다시 노력하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기 때문이다.

밥퍼는 마음을 움직였다.

- 배지원 (코오롱 인더스트리)
 평소 봉사 활동을 많이 못하였지만 우연치 않은 기회에 밥퍼에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 식사를 하시는 모습에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각조차 잘 되지 않는 모습의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밥퍼에서 봉사 해 주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밥퍼는 종합병원이다.

- 윤문규 (코오롱 인더스트리)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 거리에서 동사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추위와 굶주림이라는 병을 치료해 드리고 있는 밥퍼야말로 종합병원이야말로 생각합니다.

밥퍼는 카페이다.

- 이규문 (코오롱 인더스트리)
 처음엔 몰랐지만 남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중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카페이다.



밥퍼는 사랑이다.

- (주)안세 안강현
 한해한해 지나면서 결국은 모든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고 나약한 인간이기에 머리가 자라고 한참이 지나서야 그렇게 깨닫는가 봐요. 지금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셔서 또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교든 철학이든 마음아든, 머물지 않고 움직일 때 비로소 힘을 갖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워지는 봄날이 오네요.

밥퍼는 인류애의 실천이다.

- (주)안세 문찬식
 우선 저에게 이러한 좋은 마음을 갖게 해주신 다일공동체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전파하고 같이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밥퍼는 감격이다.

- 최명준 (명지향)
 아직 한 끼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쌀쌀한 일기 속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배식행렬을 보고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과 감격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자주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퍼는 엄마다.

- 송지선 (동덕여고 학생회)
 모든 사람을 따스하게 받아주는 밥퍼에 와서 지금의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고 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밥퍼는 씨앗이다.

- 홍윤아
 밥퍼는 점점커지고 굳게 뿌리를 뽕게 해주고 열매를 맺게되기 전에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같다.



영광교회 고등부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봉사를 해보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고 하네요. 한 끼의 식사에 담겨진 사랑과 노력을 배우고 보람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신입사원
 신입사원 연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온 밥퍼에서의 5시간 짧은 봉사활동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소중한 경험과 따스한 마음이 되려 얻어갔다고 합니다.



명지향
 고되고 힘든 분들의 한 끼에 조금이나마 시간을 내어 봉사할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도 명지향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지혜님 가족
 주지혜님이 두 딸과 봉사를 왔습니다. 양 손 가득 어른들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해온 초코파이는 푸근한 정으로 캔 커피는 따뜻함으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상규님
 오늘은 밥퍼에서 자장면 먹는 날이었습니다. 이상규 봉사자의 노련한 솜씨로 자장면이 만들어 젖고 어른들은 참 맛있게 드셨습니다. 가장 잘하는 것으로 어른들을 대접하기 위해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온아카데미
 봄온아카데미에서 불기운을 한껏 몰고 봉사 왔습니다. 미래의 아나운서를 꿈꾸는 분들이 아름다운 미모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에게 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안세
 안세에서 사장님과 임직원들이 함께 봉사 와주셔서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하루 배식비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개인자원봉사자
 단체로 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봉사하는 날 만큼은 한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합니다. 다일의 의미처럼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일치 안에서 다양성을 이루는 다일입니다.



(주)두산
 두산그룹에서 최광주사장님과 함께 40여명의 임직원들이 함께 밥퍼봉사에 동참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더 따뜻한 밥, 더 맛있는 밥, 더 건강한 밥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밥을 지어주십사 후원금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화회계법인

MOORE STEPHENS

INTERNATIONAL LIMITED

☎ 02-565-4031 (FAX) 02-566-4031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41
 현죽빌딩 2층 (www.shcpa.co.kr)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2013년 3월 8일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의 2012년 12월 31일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및 제약이 없는 순자산변동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재단의 이사장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 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재단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 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의 2012년 12월 31일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그리고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재단의 정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처리규칙, 한국의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지침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 화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석 완 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삼화회계법인은 Moore Stephens International Limited 의 한국 내 회원사입니다.
 Moore Stephens International Limited 의 회원사들은 약 98개 국가에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계정과목		산출내역		
과목	항목	세목	2012년사업결산	
수	수 증 금	전 년 도 이 월 금	689,914	후원금, 기본재산.전도금, 상품권
	(후 원 금)	금 년 도 출 연 금	4,893,915	후원금, 후원물품, 상품권
		소 계	5,583,829	
	(이 자 수 익)	금 년 도 이 자 수 익	17,158	
		소 계	17,158	
입	국고 보조금	동 대 문 구 청 , 문 광 부	130,078	
	잡 수 익	잡 수 익	5,797	
	수 입 총 계		5,736,862	
지	목적사업비	천 사 병 원 운 영	784,757	
		노 인 무 료 급 식 사 업	860,546	
		재 가 노 인 지 원 사 업	12,548	
		기 타 부 대 사 업	856,741	해외사업, 장학사업, 재가복지
		다 일 D.T.S 훈 련 원	39,532	
		설 곡 산 다 일 공 동 체 운 영	1,216,104	
		다 일 작 은 천 국	4,505	자부담 지원금
		목 적 사 업 비 계	3,774,733	
		일 반 관 리 비 계	634,680	
	출		자 산 취 득 비	352,207
		법 인 운 영 비 계	986,887	
		예 비 비	0	
지 출 소 계			4,761,620	
	이월금	975,242		
지 출 총 계		5,736,862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하는 2013 희망나눔 밥퍼봉사

- 김군섭 사장님과 임직원 30여 명 참여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올해 첫 나눔활동으로 '2013 희망나눔 밥퍼봉사' 를 왔습니다. 한수원은 이번 밥퍼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나눔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 밥퍼나눔운동본부를 방문한 한수원은 봉사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한 후원금(2천만원)도 전달하였습니다.

첫 번째 밥퍼봉사에는 김군섭 사장님과 윤창기 노조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찾아 밥상공동체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날 밥퍼 봉사를 시작으로 2013년을 사회책임경영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실천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밥퍼봉사에는 한수원의 승진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왔습니다. 실장급, 부장급 승진간부 30여명이 참여했는데요. 한수원이 승진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식사준비부터 배식 및 설거지까지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이 전해지도록 마음을 다하여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봉사팀 이름도 '사랑의 봉사팀' 이었나봅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승진자 대상 봉사활동을 정례화 할 계획으로, 노사 대표 및 고위 간부가 솔선수범하는 봉사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수원 전 가족들이 다일공동체 영성수련원에서 직원연수회도 열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미니인터뷰



열심히 밥을 푸고계신 김군섭 사장님



1, 2, 3, 4 김군섭 사장님과 윤창기 노조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의 활기찬 밥퍼봉사현장

밥퍼봉사를 마치고...

최회영 (한수원)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기분을 잊지않고 항상 나보다 낮은 곳의 사람들을 어루만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가난 모두를 구제할 순 없겠지만, 따뜻한 밥 한끼로 지치고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는 다일공동체는 나랏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강주 (한수원)

다른 곳에서 봉사활동을 몇번 했으나 '밥퍼' 봉사는 처음이어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와서 보니 좋은 사람들과 힘을 합쳐 어려운 분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는 이 일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힘이 들었지만 많은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이 맛있게 밥을 드시고 가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지금,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 세상은 따뜻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마음먹습니다.



천사기업들을 기다립니다.

다일공동체의 국내외의 사업에 동참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기업을 기다립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02 <다일천사병원> 외환은행나눔재단 봉사팀



03 <예향어린이집> 여러가지 소리가 모여 하나의 음악으로



05 <네팔다일공동체> 마느하르 공동화장실과 우물



06 <베트남다일공동체>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달된 형제 예배 첫 헌금



07 <중국다일공동체> 장라오스 봉사자의 아쉬운 마지막 봉사

국내분원소식

01 다일작은천국

도서관 책 후원

다일작은천국에 도서관이 마련된 후 책 후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인 박혜원님께서 본인의 소설집 '브로콜리로 장식한 송어' 세 권을 비롯해 다양한 책을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2 다일천사병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나눔

외환은행나눔재단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환우약품비로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정기적인 자원봉사로 섬기고 약품비까지 후원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병원을 찾는 환우분들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03 예향어린이집

작은 악기연주회

3월 15일에는 행복반 유아들이 그 동안

배웠던 노래와 율동을 악기에 맞춰 뽐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악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고 친구들이 연주하고 싶은 악기를 골라서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음악에 맞춰 신나게 악기를 연주해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신입원아 적응기간

3월 4일에는 예향어린이집에 새로 입학한 어린이들의 적응기간으로 시골벽적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어린이집이라는 낯선 곳에 와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기도 했지만 엄마와 헤어질 때는 너무도 슬퍼하며 선생님에게 안겨 울음이 그치지 않았던 한 주 한 주 였습니다. 그래도 좋은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감을 가지고 놀이하면서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는 예향 친구들입니다.

지역사회연계활동 - 동화구연

3월 11일에는 강남구 시니어플라자에서 방문하여 동화구연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예향어린이들이 할머니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눈이 초롱초롱, 귀가 쫑긋~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동화구연을 들려주

시는 할머니께서 동화구연과 함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율동과 노래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3월 생일잔치

3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의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도, 생일을 축하해주던 친구들도 모두 함께 어린 시절의 하나님을 닮아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감사기도를 드리며 친구들이 나누어주는 생일선물도 받으며 우리 친구들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가득했던 즐거운 생일잔치였습니다.

해외분원소식

05 네팔다일공동체

나눔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빈민촌 공동화장실입니다. 지금까지 공동화장실 2개를 지었고 앞으로 18개의 화장실을 더 짓고자 합니다. 1개의 공동화장실을 짓는 비용은 약 1백만원(천불)입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미싱기술학교의 천이 필요합니다. 네팔의 가난한 여성들에게 대안 생리대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네팔의 천은 거칠고 물빠짐이 심해서 여성들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생리대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천(면)을 보내주세요.

06 베트남다일공동체

첫 형제예배 헌금

형제예배는 호치민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 3개 교회의(지구촌 새생명교회,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 호치님 온누리교회) 중, 고등부 연합예배입니다. 3개의 교회가 처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드린 첫 예배의 헌금을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들을 위한 하루 급식재료비로 써달라며 학생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헌금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전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지 가슴이 뭉클해져 왔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만들어 나갈 세상을 생각하니 가슴 벅차고 행복합니다.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청년부 봉사목장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청년부 봉사목장에서 밥퍼 봉사를 왔습니다. 봉사하는 내내 진지를 드시는 분들과 웃음으로 인사를 나누며 사랑으로 봉사해 주었습니다. 한 번의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봉사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밥퍼 사역지에서 활약할 봉사목장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07 중국다일공동체

양자선교회 4차 방문 봉사활동

양자선교회(대표 허에스더)의 주다비, 허에스더 선생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1년 동안 벌써 4번째 방문 중이신 두분! 매번 맛있는 특식을 해주시며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며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기도 후원 아끼지 않으시는 아이들의 따뜻한 할머니이십니다. 아이들도 이제 한국에서 할머니 오신다고 하면 "예예~~" 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벌써 4번째 방문이라 아이들의 이름도 다 아시고 취향도 아셔서 오실 때마다 아이들 취향에 맞춰 선물도 한아름 안고 오셔서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입니다.

홍십자에서 온 사랑의 우유

중국의 홍십자는 한국의 적십자와 같은 기관입니다. 훈춘시의 홍십자에서는 매번 다일어린이집을 위하여 많은 선물을 보내주곤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동들을 위한 우유와 분유, 유아용 비스킷, 선식 등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우유 감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얼빈으로 가신 장라오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라며 어느 날 다일어린이집을 찾아오셨던 장라오스 봉사자는 직장이 끝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과일이나 아이스크림을 들고 오셔서 꼬맹이들과 그림도 그리고 놀이도 하시며 정이 듬뿍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하얼빈으로 발령이 나서 멀리가게 되었다며 마지막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장선생님은 눈물을 흘치시는데 꼬맹이들은 언제 또 오시냐며 인사합니다. 멀리가시는 장선생님께서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빌며 또 만날 것을 믿습니다.

Dail Book Cafe

Dail Book Cafe에 소개된 책은

다일의 흥보대사이며 플랫 연주자이신 송솔나무님과

협력대사이며 마누카 네츨릴 대표인 채송아님의

신간 서적입니다.

봄날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며 읽어 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연주가

송솔나무 지음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시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왕따에서 줄리어드 장학생으로,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빈민촌 거리로 8년 동안 전 세계 80개국, 2년 간 일본에서 200회 연주하며 오직 단 한 분의 청중만을 위해 연주하는 송솔나무의 믿음의 고백!

송솔나무 지음 | 로렌 카닝햄·유기성·이재훈·박수환 목사 추천 | 값 12,000원

특별증정 송솔나무 플루트 베스트 CD(미국) 포함

하나의 눈물로 핀 꽃

채송아 지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밑수 소녀에서 새 삶을 선물하는 CEO가 되기까지 채송아 저자의 파란만장한 삶이 애잔함으로 다가온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채송아 대표의 사랑과 리브스토리

하나의 눈물로 핀 꽃

채송아 지음 | 국판 변형 | 328쪽 | 13,000원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에게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 2월 21일~3월 19일 국내통장 입금 기준입니다.

3월 신규후원

김세진, 강귀영, 강금순, 강명숙, 강미진, 강삼식, 강성자, 강순덕, 강순애, 강영석, 강은지, 경규한, 고미진, 고병수, 곽은주, 구연호, 권병민(권중각), 권숙, 권정희, 권한성, 김경란, 김경숙, 김경아, 김경희, 김공심, 김광록, 김근택, 김대근, 김미애, 김병남, 김복자, 김봉남, 김상호, 김선영, 김선희, 김성훈, 김소은, 김수정, 김수환, 김승범, 김승희, 김신애, 김쌍임, 김양순, 김영란, 김영선, 김영숙, 김영호, 김영훈, 김원희, 김유중, 김정성, 김정숙, 김조현, 김중엽, 김주석, 김주태, 김주희, 김지연, 김지훈, 김태현, 김태현, 김태환, 김필자, 김향순, 김현지, 김형준, 김혜숙, 김혜정, 김호경, 김희성, 김희진, 남윤숙, 노유순, 노윤성, 노찬수, 노향란, 류대협, 맹정희, 명대근, 문명찬, 문성식, 문영자, 박경호, 박경희, 박명숙, 박명희, 박미경, 박병용, 박삼옥, 박선희, 박성경, 박성근, 박성범, 박성용, 박소윤, 박아람, 박영진, 박영호, 박유선, 박윤희, 박인숙, 박인숙, 박일심, 박정숙, 박종대, 박종옥, 박지용, 박지현, 박철규, 박하영, 방근은, 백미란, 백상경, 백성기, 백은정, 서석미, 서지민, 서진규, 서진주, 설광우, 성열학, 손미경, 신경진, 신성수, 신해운, 신해성(배영자), 신현홍, 심은현, 안교길, 안상준, 안장균, 안재원, 양계열, 양란, 양상환, 양유림, 오경아, 우서영, 우진영, 우찬영, 위용민, 유경희, 유길분, 유동진, 유보근, 유실화, 유영호, 유은혜, 유재은, 유재호, 유정혜(김인환), 유혜영, 육일심, 육종근, 윤기영, 윤순화, 윤승길, 윤영분, 윤원서, 이경열, 이경진, 이광영, 이광희(김의태), 이대희, 이동배, 이동일, 이문주, 이병철, 이병훈(황미혜), 이상은, 이성욱, 이소라, 이수미, 이수산(김복남), 이순희, 이영노, 이영숙, 이완구(김계소), 이은희, 이재덕, 이재욱, 이정만, 이정화, 이주현, 이진영, 이찬호, 이태범, 이평화, 이해남, 이현숙, 이혜정(이성만), 이혜진, 임경윤, 임보라, 임호, 장내운, 장성남, 장성숙, 장성욱, 장세희, 장영애, 장윤선, 전경선, 전귀성, 전정임, 장남석, 정의업, 정진욱, 조계은, 조면호, 최정숙, 조미희, 조병근, 조성숙, 조영선, 조용은, 조은희, 조정란, 조혜경, 주병규, 주희경, 지원, 지인선, 채수아, 채일미자, 천상출, 최광백, 최명화, 최민경, 최민희, 최승기, 최은진, 최재완, 최재천, 최진국, 최찬문, 최혜정, 최희수, 한규하, 한상민, 한상태, 한수범, 한영만, 한은서, 한은하, 허정우, 허효경(신한성), 홍준우, 홍준근, 홍희숙, 황중태, 황하얀

밭퍼나눔운동 후원

[후원금]
(주)안세, 3050아띠산악회, 4050수도권산악회, 강은지, 강찬훈, 광현교회, 국방홍보원, 권혜진(휘슬러비즈), 김동림, 김선아·안중산, 김성철, 김은일, 김은정, 김재하, 동대문구청, 동부병원간병사, 동송교회, (주)두산, 머니트리, 박명숙, 박유미, 박종일, 뷰티플마인드, 삼육보건대학, 서울메트로, 서장선, 서정숙, 소망봉사팀, 신민숙, 양순화, 양희돈, 에스지엔지, 에이엠지코, 오정훈, 오정훈, 외환은행나눔재단, 윤순옥, 윤현숙, 이동원, 이일옥, 이제승, 이종욱, 이종희, 이정창, 이희숙, 인효진, 일산은혜교회, 정신남, 조현숙, 주도산, 최경근, 최성봉, 최주영,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은행경리팀, 핸드스튜디오, 현대상선, 흥경화, 황재영

[후원물품]

- 2/21 동대문구청/쌀
- 2/23 드림재단/빵, 아시아경제/절갈
- 2/26 박순임/떡,사과, 가나다푸드/김치
- 2/27 김정원/쌀, 드림재단/빵
- 2/28 주지혜/초코파이, 캔커피
- 3/5 가나다푸드/김치
- 3/6 권태숙/쌀
- 3/8 후너스바이오/쌀
- 3/12 가나다푸드/김치
- 3/13 드림재단/빵
- 3/14 이상현·김은숙/쌀
- 3/16 송원동장/고추가루

[후원약정자]

강막래, 강은지, 김경식, 김대현, 김영숙, 김영애, 김재상, 김재숙, 김정경, 김채환, 문진주, 문찬식, 박경숙, 박지현, 박지혜, 박형준, 박홍성, 백미란, 손필순, 안강운, 안강현, 안병근, 안채연, 염서윤, 염은지, 오정란, 유보근, 윤정순, 윤정순, 이경수, 이규상, 이상중, 이재영, 이재승, 이현석, 이현순, 임경윤, 임호, 정명진, 정소린, 정지윤, 조명희, 천혜림, 최상덕, 최영남, 최영환, 최정덕, 한창덕, 허정우

< 해외분원 >

중국다일공동체

[방문&후원]
강영남(홍콩), 김성재(Obey & Praise), 김정명 목사님, 김희(훈춘시정부), 림예화·한원철(COFFEE PLUS), 이숙의(시카고), 양자선교회(대표 허에스터), 훈춘시 부원회, 홍심자(우유7B), 두만강 기술학교(빵), 훈춘시영광제빵(빵)

베트남다일공동체

[나눔회원]
대우인터내셔널, 보민건설, 부산밭퍼(600만동), 사이공한인연합교회(900만동), 아리랑화학, 아산상선(4,176,000동), 우리는행 호치민지점(4,140,000동), 최용하가족포스코베트남(600만동), 형제예배, 호치민은누리교회(21,650,000동, \$102)

[정기후원]

김승민, 김승준, 남승현, 배서진, 배준익, 배진영, 전기성, 정여승, 최기흠, 최혜린, 최혜인, 추원미

[물품후원]

김정애·은애·민주·혜령(140만동), 도넛도넛(도넛124개), 송월타올(수건 300장), 유혜정(100만동), 장준은누리교회 아웃리치(100만동), 최용하가족(요구르트 150개,과자), 포스코CT(쌀20kg,바나나), 향기문목장(삶은 계란, 요구르트 150개)

[모금함]

뚜레쥬르 스카이가든점(631,500동)

[물품후원]

도넛도넛(554개), 우리은행(바나나), 최용하가족(요구르트 130개) 포스코CT(쌀 60kg, 바나나)

[자원봉사자]

SK 2명, 권광희, 김지송, 대우인터내셔널(최시호외7명), 박시은, 배진영, 사이공한

인연합교회 청년부 봉사목장(8명), 손규호, 오채린, 우리은행호치민지점(최형호, 장재호외 6명), 이창순, 포스코CT(정혁선,이달우,장준화,박용남,김성태외 13명), 포스코SOUTH ASIA(4명), 포스코베트남(김동호,조은현,김대업,최진혁외 19명)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방문&후원]
2012-12국제라이온스356-D지구, 경기도 사회복지사 협회, 고병태·김병숙·고수인, 고세인·이파리, 광주광역시봉사동일우회모임, 국제로타리3720 지구울산로타리 클럽, 그린파이낸스, 김시은, 김태은·김지현, 대구천우라이온스클럽, 대구청구불무발최승일,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청소년봉사단, 더투어스, 동아계전주식회사 김중성, 무명2, 미주다일공동체, 밀양남부교회 박준수, 밀양남부교회 한성환, 박진우·박건우·박정우, 박현길, 배진현(스테파노), 선교연합교회 한요한 목사, 설나현집사, 성두성, 성혁모·김덕순, 속초감리교회, 신명교회, 안양인우회 김병도회장의 회원일동, 안양주일교회, 여수YMCA, 여행객모금, 여행팀, 여행팀, 예산군대흥면 이복수·명광호·강신철·김진희·심용구, 울산학성고등학교총동창회회원일동, 이승근·오영웅, 이지현·이용현(해원협단원), 장은서·장승준, 점프체험봉사단, 조민희·박유하, 총대부오창렬, 지일환, 천안중앙고 16호 3학년1반 가족일동, 충주김태욱, 충주애플라이온스클럽, 충주이은하, 충청북도 교육청 장학사이창수, 충청북도교육청구외연수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위원장 김혜경, 탄자니아다일공동체위원장 변창재, 토마토은행, 포항양포교회, 하나투어, 한국동서발전일산열병합발전처, 한상소, 효자시니어복지센터 유용식

다일은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1. CMS(자동이체)

-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3.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 사랑의 보험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기부플랫폼에 견적예약 하면 보험만기 1개월 전에 8개 보험사 비교견적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가입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수익금의 30%(최대 3만원)가 다일공동체에 가입회원의 이름으로 기부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 참여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지역 후원계좌

-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 은행번호 : 061119794
- 계좌번호 : 1510014622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34001270347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 국내후원계좌 국민 467701-01-05311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DAIL Community of USA Fax 1-770-813-0133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법피나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beh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Sunyou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bjgjesus@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433-753-8004

E-mail mookanri@dail.org

후원계좌 기업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12-6317-7912 070-8220-6160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855-12-808861

E-mail gracekeong@dail.org

후원계좌 씨애플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프놈펜 국민 467701-01-14257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278 63-927-560-7346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94-58330

E-mail 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669 255-786-740-003

E-mail bcj337@dail.org / dail8004@g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6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